



'예술가 와인의 만남, 박선기 작가와의 아트레이블 시리즈'

미켈레 끼아를로 가비 DOCG 아트레이블

MICHELE CHIARLO GAVI DOCG ART LABEL

지역	이탈리아 > 피에몬테 > 가비		
포도품종	코르테제 100%		
알코올	12.5%	용량	750ml
등급	DOCG	시음 적정 온도	10°C
테이스팅 노트	감귤류와 흰 꽃 아로마가 은은하게 느껴지며 신선한 산도가 뜻뜻하게 입 안에서 퍼진다. 피에몬테의 신사라는 별명에 걸맞게 섬세하고 부드러운 스타일의 가벼운 화이트 와인이다.		
페어링 TIP	생해산물/흰살생선/채소(샐러드)/밀가루음식(피자,파스타와)		



제품설명



피에몬테의 예술가 '미켈레 끼아를로'와 독특하고 매혹적인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박선기' 작가와의 만남으로 탄생한 와인이다. 자연의 순환적 의미를 작품에 담고 있으며 불, 에너지의 시작과 끝이 이어지는 사이클을 표현하고 있다. 주로 나무를 태운 숯을 공중에 매달아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바톨로에는 박선기 작가의 '화분' 드로잉이 표현되었다. '미켈레 끼아를로 가비 DOCG 아트레이블'은 미켈레 끼아를로에서 한국을 위해 특별히 선보인 와인으로 '화이트 바톨로'라고 불리울 정도로 높은 품질을 지닌 와인으로 섬세하고 신선함이 매력적인 와인이다.

와이너리



1950년대부터 포도밭을 일구고 와인을 양조해 온 미켈레 끼아를로는 가야, 안티노리와 같은 그란디 마르끼의 주요 일원이다. 처음으로 이탈리아 와인을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했던 1세대 수출 와이너리로서, 현재까지도 피에몬테 No.1 수출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톨로, 바르바resco, 바르베라 다스띠를 통틀어 유일하게 이들의 탑 싱글 빈야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부띠고 와이너리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과 가격 대비 최고의 품질로 와인 애호가들의 니즈와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프리미엄 월리티의 피에몬테 와인을 생산하겠다는 일념 하에 이탈리아 DOC 법이 생기기도 이전에 자체적으로 현재 법규 수준 이상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시행해왔으며,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현대적인 양조 기술을 도입한 생산자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